

- 주요 뉴스: 연준 주요 인사, 점진적 금리인하 추진 고용 악화 시 적극적 금리인하 필요
 - 미국 대선, 접전 지역에서 양측의 지지율 팽팽. 베팅 사이트는 트럼프 승리 예상
 - ECB 주요 인사, 추가 금리인하 지속될 전망. 견고한 디스인플레이션 여건을 반영
 - 중국 인민은행, 5년 및 1년 대출우대금리(LPR) 25bp 인하. 경기부양 등이 목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큰 폭 금리인하 전망 후퇴 및 이에 따른 국채금리 급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국채금리 상승,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중동 긴장 고조, 기업실적 경계감 등으로 0.7%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연준 위원들의 점진적 금리인하 지지 발언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5%, 0.9%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경기 연착륙 기대 등으로 상승하며 7월 하순 이후 최고치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10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77.2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9.5원, 0.05% 상승). 한국 CDS 약보합

주요지표					주요지표				
		10/21일	10/18일	전일대비			10/21일	10/1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5,854.0	5,864.7	-0.18%	국채금리 10y	미국	4.20%	4.08%	+11bp
	유럽	521.52	524.99	-0.66%		독일	2.28%	2.18%	+10bp
	중국	3,268.1	3,261.6	+0.20%		영국	4.14%	4.06%	+8bp
	일본	38,955	38,982	-0.07%	CDS 5y	한국	33bp	33bp	-0bp
	한국	2,604.9	2,593.8	+0.43%		중국	63bp	63bp	-0bp
환율	달러지수	103.97	103.49	+0.46%	위험지표	EMBI+	-	381	-
	유로화	1.0815	1.0867	-0.48%		VIX	18.37	18.03	+1.89%
	엔화	150.84	149.53	-0.87%		WTI유	70.56	69.22	+1.94%
	위안화	7.1209	7.1023	-0.26%	원자재	구리	436.0	438.5	-0.57%
	원화	1,378.8	1,369.3	-0.69%		금	2,719.9	2,721.5	-0.0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연준 주요 인사, 점진적 금리인하 추진. 고용 악화 시 적극적 금리인하 필요

- 달러스 연은의 로건 총재는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기에 금리인하를 점진적 형태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통화정책의 제약적 수준을 낮출 때 연준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양대 책무를 이행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첨언.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목표 달성과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
- 아울러 FOMC는 민첩한 의사결정을 유지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통화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언급. 현 상황에서 시장에서 유동성 수준은 매우 높기에 양적긴축 종료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평가. 또한 금융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첨언
- 한편 미니아폴리스 연은의 카쉬카리 총재는 상당 기간 완만한 속도의 금리인하를 예상하지만, 노동시장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금리인하 속도는 빨라져야 한다고 발언. 이에 더해 현재 금리는 경제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향후 중립금리는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추정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대선, 경합 지역에서 양측의 지지율 팽팽. 베팅 사이트는 트럼프 승리 예상

- 워싱턴포스트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해리스 후보 지지율이 49%로 48%의 지지율을 기록한 트럼프 후보보다 높은 상태. 한편 7개 경합 지역에서는 양측의 지지율이 접전 국면. 다만 실제 베팅이 가능한 사이트 Polymarket, Betfair, PredictIt 등에서는 모두 트럼프 후보 승리에 대한 베팅 규모가 더 많은 상태

■ Goldman Sachs, 향후 S&P500지수 상승률은 이전 대비 낮아질 전망

- David Kostin 애널리스트는 향후 10년 동안 S&P500지수 상승률이 연간 3%에 그쳐 장기 평균(11%)을 하회할 것으로 추정. 한편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S&P500지수가 연말에 60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대선 결과보다는 기업실적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
- JPMorgan은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에 대한 헤지 차원에서 미국 달러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 반면 유로화는 당분간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

■ ECB 주요 인사, 추가 금리인하 지속될 전망. 견고한 디스인플레이션 여건을 반영

- 리투아니아 중앙은행 총재 심쿠스 위원은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방향은 분명하다고 강조. 다만 당장 12월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첨언. 한편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총재 카지미르 위원은 디스인플레이션 기반이 견고하다는 사실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

■ 영란은행 그린 위원, 금리인하 등은 소비를 촉진할 가능성

- 부진한 소비가 금리인하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언급. 특히 금리인하로 가계의 저축이 감소하면서 소비를 촉진하게 된다고 설명. 다만 통화정책 완화는 불확실성이 높은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 독일 9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하락 지속. 에너지 가격 부진 등이 영향

- 9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1.4% 떨어져 예상치(-1.0%) 하회. 이는 15개월 연속 하락으로 최근 저조한 에너지 가격 상승률(-6.6%) 등이 반영.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경제국의 물가 상황이 ECB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인다고 평가

■ 중국 인민은행, 5년 및 1년 대출우대금리(LPR) 25bp 인하. 경기부양 등이 목적

- 5년 및 1년 LPR을 각각 3.60%, 3.10%로 제시하여 모두 이전(각각 3.85%, 3.35%) 대비 25bp 인하. 이번 조치는 판공성 총재의 이전 발언에 부합한 것이며, 시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당국의 의지가 피력된 것으로 평가. 또한 경기 부진이 이어진다면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국제에너지기구(IEA), 금년 글로벌 원유 수요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전망

- 금년 글로벌 원유 수요는 일일 220만배럴 증가를 기록하여 당초 예상보다 일일 20만배럴 높은 수준 나타낼 것으로 추정. 이는 중국 수요가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는 중국의 경기회복이 기대보다 빠르고 강하다는 평가가 확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0/22 현지시각 기준)

-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ECB 라가르드 총재 및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 발언
- 미국 10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양호한 경제지표, 향후 경기 무착륙(no landing) 가능성을 제기 - Financial Times

(Soft landing vs no landing)

-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경기가 연착륙(soft landing) 경로에 있는지, 아니면 무착륙(no landing) 시나리오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무착륙 가능성은 12개월 경기 예측 기준으로 높지 않지만, 이전 달보다 2배 상승(7%→14%, BofA)
- 이는 9월 고용 호조와 소매판매 증가율의 가속화 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강력한 노동시장과 견고한 소비 기반이 무착륙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에도 부합(JPMorgan). 아울러, 4월 이후 4%의 임금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경제 성장을 반영하는 주가의 강세 행진도 무착륙 가능성을 뒷받침

■ 미국 투기등급 채권 발행의 급증, 경기 연착륙 기대 반영하지만 거품 우려도 존재 - WSJ

(Red-Hot Bond Market Powers Wave of Risky Borrowing)

- 최근 2개월 동안 고용지표 호조와 주요 주가지수의 연이은 역사적 신고점 경신 등으로 경기 연착륙 기대하는 낙관주의가 확산. 이에 투기등급 채권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 주 미국 국채 대비 추가 수익률이 2.85%p 하락하며 '14년래 최저 수준에 근접
-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대부분 대규모 채권 발행을 통해 만기연장 및 배당금 지급 등 주주 보상에 자금을 배분. 이는 기업 수익성과 무관한 행태로 일부에서는 차입금 확대에 따른 거품 우려가 제기. 다만 대규모 상환 만기는 '28년부터 도래하기 때문에 당분간 심각한 위험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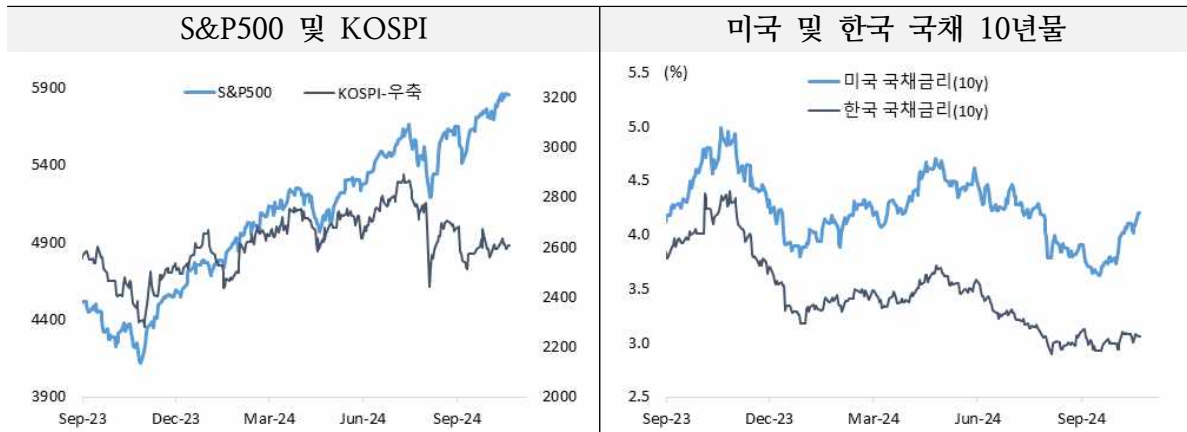
■ 중국의 경기부양책, 자금 규모 자체 보다는 효과적 활용 등이 성패의 관건 - 블룸버그

(China Stimulus Is More Than Just One 'Damn Nu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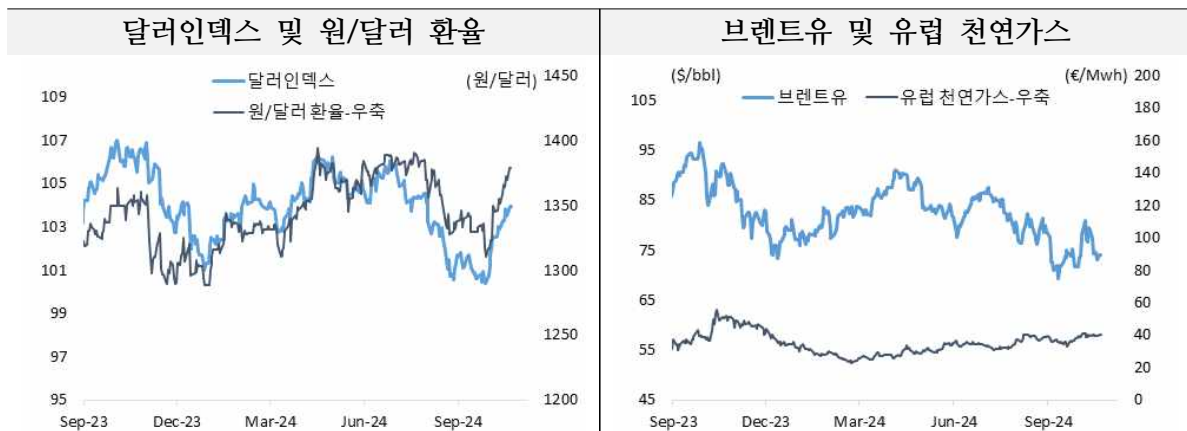
- 최근 당국이 정확한 경기부양책 규모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10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주가 상승세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 그러나 현 상황에서 부양책 규모 자체보다는 조성된 자금의 효과적 사용 여부가 더욱 중요. 한편, 지금까지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이번 부양책은 부채 구조조정에 초점
- 이러한 정책 기조는 과거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큰 변화. 그 동안 경기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재정긴축이 거론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향후 경기부양 관련하여 긍정적. 다만 실제 시행에는 부채 감사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에 시간이 소요할 전망

- **금 가격 상승, 탈달러화 및 미국 중심 금융시스템의 영향력 약화 초래할 소지 - Financial Times**
(Why the west should be paying more attention to the gold price rise)
 - 지난 1년 간 금 가격이 약 40% 상승. 이러한 현상은 금 가격이 금리·물가·통화와 같은 전통적인 영향 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 또한 이는 여타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금을 매입하면서 자산을 다변화하고 달러화 기반 금융시스템의 대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 아울러 미국의 세계 경제 질서 관리에 대한 신뢰 상실, 경제 제재의 무기화, 규칙 기반의 협력적 다자간 시스템에 대한 관심 감소 등도 영향.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될 경우, 전세계 시스템이 분열되고 달러화와 미국 금융시스템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
- **미국의 대중영합주의, 과거의 성과 참조했기에 미래 경제 성장 촉진에 부적합 - 블룸버그**
(Populism Is Bad for Economic Growth)
- **미국 대선 트럼프 후보의 관세 정책, 물가 상승과 생산성 저하 유발할 우려 - 블룸버그**
(Trump's Tariffs Appeal to Voters. Don't Be Fooled.)
-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 향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위협할 가능성 - WSJ**
(Threat of Chinese Overcapacity Looms Over Memory Chips)
- **신흥국의 미래 경제 성장, 제조업 의존에서 탈피하여 다각화된 접근이 요구 - 블룸버그**
(Developing Countries Can't Count on Manufacturing to Supercharge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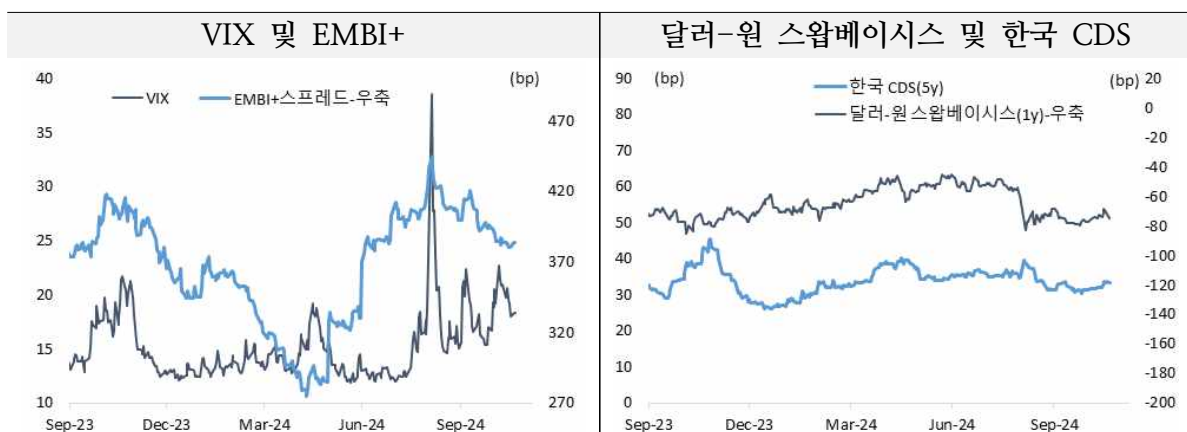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